

## ‘오미크론’ 상륙 우려에 일상 회복 물거품 되나

〈코로나19 변이〉

2단계 전환 유보·4주간 특별방역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로 축소  
18~49세 백신 추가 접종키로

집단면역 달성으로 일상회복을 기대했던 광주·전남 사·도민의 바람이 신종 변이 출현 등으로 물거품이 될 위기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조치 후 수도권을 뒀던 집단감염은 상대적으로 청정지역이었던 광주·전남으로 번졌고, 델타보다 강력한 것으로 추정되는 남아프리카공화국발(發)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의 국내 상륙마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강력한 일상회복 의지를 밝혀왔던 방역당국은 결국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고 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을 시행하기로 했으며, 12월 20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로 축소, 12월 4일부터 18~49세 기본접종 완료 5개월 후 추가 접종 가능 등을 결정했다. 방역당국은 또 현 상황이 더 악화할 것에 대비해 식당·카페 내 사적모임 축소 등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 이전 단계로 일부 회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이날도 광주에선 어린이집, 초·중학교 등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이어졌다. 광주에선 지난 1주일(22~28일)간 17개 어린이집, 초·중·고에서 4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6303명이 관련 전수 검사를 받고 943명이 자가 격리됐다. 이날 중에만 10대 이하에서 271명이 확진돼 전체 확진자 수의 3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에선 이날도 광산구 소재 어린이집 관련, 서구 소재 초등학교·중학교, 광산구 소재 초등학교 관련, 동구 소재 학원 관련 등에서 13명이 신규

감염되는 등 총 39명이 확진 됐다. 목욕탕, 병원, 제조업체 등 일상생활 속 집단감염도 여전하다. 지난 주말 이틀 동안 113명이 확진됐으며 한 주간 1일 평균 확진자 수는 47명이었다. 지난 19일 이후 11일째 하루 확진자가 30명을 넘고 있으며 27일부터는 52명, 61명 등 50명 이상을 기록했다. 신규 확진자 급증으로 광주에 있는 국가지정 및 중증전담병원 병상(전남대병원 16, 조선대병원 13)도 25개 중 2개만 남았다.

전남도 상황이 심각하긴 마찬가지다. 이날 오후 2시 현재 17명이 신규로 확진됐는데 나주 7명, 목포 4명, 여수·광양 각 2명, 구례·보성 각 1명이다. 최근 일주일(23~29일) 전남 확진자는 52명→42명→38명→36명→25명→28명→17명으로 다소 감소세이긴 하지만, 언제든 무더기 확진자 발생이 가능한 살얼음판 상황이라는 게 전남 방역당국 판단이다.

코로나19 민간전문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최진수 전남대학교 의대 명예교수는 “전국적으로 방역 조치 완화 이후 확진자와 중증환자 증가, 세계적으로는 오미크론 출현까지 예측하기 힘든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 만큼 방역당국은 보다 적극적인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면서 “시민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생활을 조금이라도 더 유지하기 위해선 백신접종 여부를 떠나 마스크를 반드시 쓰고, 모임을 최소화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29일 새벽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3309명이 나와 국내 누적 확진자는 44만 4200명이 됐다. 지역별 신규 확진자 수만 놓고 보면 서울 1386명, 경기 905명, 인천 233명 등 2524명(76.8%)으로 수도권 중심의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제14회 광주비엔날레 2023년 4월 7일~ 7월 9일 개최

#### 역대 최장 94일 간 운영

(재)광주비엔날레(대표이사 박양우)는 제14회 광주비엔날레를 2023년 4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94일 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광주비엔날레는 통상적으로 짝수년도 9월 첫째 주 금요일 개막, 11월 첫째 주 일요일에 폐막하는 일정으로 66일간 운영돼 왔다. 하지만 제13회 광주비엔날레가 코로나 여파로 2020년도에서 2021년도로 연기됐고, 제14회 광주비엔날레도 전시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2023년도에 개최키로 했다.

특히 제14회 광주비엔날레는 역대 최장인 94일 간 펼쳐진다. 그동안 2개월 여 동안 열렸던 광주비엔날레 전시 기간이 국제적인 비엔날레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짧다는 의견이 나왔었다. 지난 10월 26일 열린 제177차 이사회에서도 국제적인 규모의 전시를 보다 많은 이들이 관람하고 향유하기 위해 전시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논의됐었다. 실제로 베니스비엔날레는 6개월 정도 행사를 개최하며 휘트니비엔날레와 카셀도큐멘타도 각각 4개월, 3개월간 진행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다함께 '찰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9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민 선대위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셀카봉으로 직접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명 “경제·민생 대통령 되겠다”

광주서 ‘전국민 선대위 회의’  
5일간 광주·전남 유세 마무리  
부동산·청년·언론개혁 목소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대선 100일을 앞둔 29일 정권의 심장부인 광주에서 “경제·민생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호남의 압도적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과 청년, 언론개혁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히며 ‘이재명 정부’에서는 반드시 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3면>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전 국민 선대위 회의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지금 이 순간부터 저의 목표는 오직 경제 대통령, 민생 대통령이다. 국민의 지갑을 채우고, 나라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을 위해 잘못된 정책은 과감하게 개선하고 필요한 정책은 과감하게 도입하겠다”면서 “필요하면 과감하게 양보하고 타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선대위 회의에 참석한 소상공인, 수험생 학부모, 의료진, 워킹맘 등 ‘국민 대표’ 7인은 이 후보에게 민생 고충을 전했고, 이를 경청한 이 후보는 “지난 3주, 전국에서 만난 국민들의 마음도 같았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시는 국민들께 정치가 무엇을 해드렸는지 정말로 깊이 반성했다. 정말 죄송하고, 부족함이 많았다. 그 높은 기대 채워드리지 못했다”고 거듭 자세를 낮춘 뒤 “나부터 반성하고 혁신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가 국민들이 보내온 질문지를 직접 골라 답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전국에서 보내온 쪽지 형태의 수십 개 질문지 가운데 3개만 선택해 해당 문제에 대한 해법을 듣는 자리였다. 이 후보의 선택은 부동산, 청년, 언론개혁이었다.

그는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렸다. 쟁겨달라’는 질문지를 소개하고 “부동산은

민주당에 국민들이 실망을 표현한 제일 큰 이유 중 하나”라며 “물론 노력하겠지만, 정치는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만들어 줄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문제로 국민이 고통받지 않게 하겠다. 자신 있다”며 “당장은 집값이 계속 상승 추세라 원인을 찾아내 대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어 “지역 청년을 위해 생각한 주요 공약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지를 선택하고는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며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 길은 성장 회복이다. 성장 회복의 방법은 양극화 극복과 공정성 확대”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대선 D-100을 맞아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콘셉트로, 나흘간 진행된 호남투어의 하이 라이트 행사이기도 했다. 회의에는 온라인 99명, 오프라인 99명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전국민 선대위 회의 이후 조선대에서 특강을 가진 뒤 영광 터미널시장을 방문하고 4박5일 간의 광주·전남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 30년 이상 가로수 118그루 잘려나갔다 ▶7면
- 굿모닝 예향 - 전남 스마트 관광 ▶18·19면
- 이의리 신인왕, 타이거즈 36년 한 풀었다 ▶22면



# 땅끝해남

대한민국 미래 농업 선도거점이자  
서남권 관광벨트 중심지로!

유럽마을 테마파크 투자협약 | 농식품기후변화센터 유치

해남군